

# 다산포럼

정지창



대략 서른 집에 40여명이 모여 사는 경상도의 한 마을에서 이태재 마을 '청년'들이 죽어나갔다.

청년이라고 해봤자 50을 넘겨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대부분이 70 이상의 노인이 사는 이 마을에서는 그래도 젊은 층에 드는 박씨와 정씨가 사라지면서 마을 고갈은 더욱 속출해졌다.

부리는 것이 예사였고, 그러다가도 몇날 며칠이고 바깥 출입을 하지 않은 채 방구석에 처박혀 있기도 하였다.

## 세계화시대의 우리 동네

### 50대 '팔팔'한 청년?

박씨는 7, 80년대에 해외 건설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꼬박꼬박 부쳐준 돈을 축적해 나 아내가 탕진하고 집을 나가는 바람에 혼자 사는 처지가 되었고, 정씨는 낱싹하면 마누라를 때리는 술버릇 때문에 가족의 버림을 받아 할혈단신이 되었다.

외로움과 불면증을 술로 달래다보니 결핍하면 아무한테나 시비를 걸고 술주정을

지겨운 술주정과 버릇없는 욕지거리에 고개를 내저으면서도 이웃집 할머니는 그래도 자기 딸과 동갑내기인 박씨가 불쌍하다고 끼니를 챙기었고, 몇 년 전 빈집을 얻어든 정씨는 돌아간 영감님과 먼 일가붙이라고 이것저것 보살펴 주기를 잊지 않았다.

술만 안 먹으면 부지런하고 착한 사람이라 할머니는 허전해 하신다.

사실 두 사람은 농민사와 발농사, 과수 재배에 능통한 것은 물론이고, 감나무 접

붙이기, 야산에서 더덕이나 약초를 캐다가 텃밭에 옮겨 키우기, 헤진 슬레이트 지붕 수리하기, 고장난 경운기나 농기계 수리하기 등 손재주도 뛰어난 농사꾼이었다.

그러나 죽기 몇 년 전부터는 "차라리 아무 농사도 안 짓는 편이 낫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면서 아예 농사지를 생각을 접고 지냈다.

작년 겨울에 죽은 박씨는 한 겨울에 불을 넣지 않은 냉골에서 발견되었으므로

화장으로 치러졌고 유골은 야산에 뿌려졌다. 가족이라고 해봤자 박씨의 경우에는 가끔씩 찾아오던 대학생인 아들과 딸이 상주 노릇을 했으나 집안간 마누라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씨는 근처에 산다는 게 가한 노모가 화장장까지 따라갔다고 한다.

### 적막 강산이 된 동네

이제 우리 동네에는 한미 FTA나 골프장 반대 플래카드를 내걸고 과격한 폭력 시위를 하거나 보상을 내놓으라고 터무니없이 때를 쓰는 농민은 모두 사라졌다. 남은 것은 혼자 사는 할머니들과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극노인들 뿐이다.

1970년대의 유신시대에 쓰여진 이문구의 '우리 동네'에는 솔길이라도 국가시책에 어긋장을 놓는 팔팔한 농민들이 등장하지만, 30년이 지난 세계화시대의 우리 동네는 마을회관의 확성기나 경운기 소리, 술주정 소리조차 좀처럼 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적막강산이 되어 버렸다.

<영남대 독문과 교수·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음에 뒤이은 동사로 기록되었고 올 봄에 죽은 정씨는 과음에 의한 돌연사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웃집 할머니는 박씨가 토해놓은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무언가 먹고 죽은 것 같다고 뒤늦게 귀뜸을 했다.

그러면서 정씨도 그냥 술 먹고 죽은 것 같지는 않으나 자세히 따질 사람도 없고 그러다가는 일이 복잡해지니까 화장해서 치워버린 것이라고 토를 달았다.

두 사람의 장례는 상여도 없이 간단히

## 시설

### 서남권 사업 대거 누락 개발의지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전남도가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에 반영을 요구한 사업의 대부분이 추진대상에서 누락됐다

국무조정실의 '서남권 사업 2008년 예산 반영 추진방안'에 따르면 전남도가 요구한 26조원 규모의 서남권 개발 관련 61개 사업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제시한 20개 사업 대부분이 제외됐거나 2009년 이후 중장기 사업으로 분류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신규사업은 겨우 4개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세운 서남권 개발 프로젝트가 '용두사미(龍頭蛇尾)' 격으로 끝나는 것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서남권개발사업은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총 22조4천억원 규모의 천문학적 자금이 투입되는 국가 프로젝트다. 따라서 정부의 확고한 개발의지가 담보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그런데도 개발 첫 해부터 사업 타당성 등

의 이유를 들어 사업 대부분을 탈락시킨 것은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

서남권 사업은 개발자금의 90% 정도를 민자로 충당할 예정이다. 정부가 뚜렷한 개발 및 지원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민자유치는 어렵다. 서남권 개발의 성공 여부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는 셈이다. 정부는 서남권 개발이 공약(空約)이 아니라면 확고한 지원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정부는 우선 '서남권 특별법'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전력을 쏟아야 한다. 서남권 특별법은 개발의 안정적인 기반 확보는 물론 정부 의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올 상반기 안에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정치권의 관심은 대선에 쏠릴 수밖에 없어 사업차질은 불가피해진다.

전남도와 지역 정치권도 국회와 정부 부처 설득에 나서 특별법 제정과 보다 많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 균형발전 '시장원리' 내세워 따질 일인가

참여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은 새삼스런 현상이 아니다. 상반된 시각으로 접근하면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자치단체는 물론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하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경제학회가 21일 개최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득과 실' 주제의 정책포럼에서도 논란이 뜨거웠다. 찬성론자들은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지적하며 균형발전 전략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대론자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비효율성과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수정을 요구했다.

어떤 정책이든 '득'과 '실'이 있기 마련이다. 균형발전 전략도 예외일 수는 없다. 찬반론자들이 나름대로 확고한 논리를 바탕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만큼 어느 한 쪽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전체 인구의 48.3%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현실이 정상일 수는 없다. 이런 추세라면 2011년에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리게 된다. 오죽하면 '서울공화국'이란 비아냥까지 나오겠는가.

반대론자들은 '균형을 통한 발전'은 실현될 수 없는 허구라며 '발전을 통한 균형' 전략을 주문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적·물적자원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지방에 투자할 기업은 없다.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으로 지역간 갈등이 조정되고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측면은 있을 것이다.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시장 원리로 접근해선 균형발전은 기약할 수 없다.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대한 투자가 국가 전체적으로는 파급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지역 불균형을 시정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 NGO 칼럼

정항자



주먹밥과 한철은 5·18 민중항쟁의 가장 민중적인 모습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동체 정신이 표현된 하나의 상징이다.

인간이 죽을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은 자신 보다 못한 사람에게 자신에게 남은 무언가를 나눠주는 일이다.

광주는 폭압적인 총칼 앞에서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며 5·18 민중항쟁을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항쟁으로 꽃피울 수 있게 했다.

80년 5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술단지 들고 쌀을 가지고 나와 장작불을

들은 갈 곳 없이 고통을 받았다.

하지만 가장 힘들고 괴로운 실직자들은 매년 5월이 되면 5·18 주먹밥을 시민들에게 손수 나눠줬다. 항쟁 당시를 생각하며 주먹밥을 나누면서 실직의 고통을 감싸는 마음으로 승화시켰다. 서로 고통을 나누고 격려하면서 실업 극복 의지를 키워나갔다.

주먹밥은 실직자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나누며 희망을 키울 수 있는 힘을 줬다. 주먹밥을 만들고 나눠주는 '일'을 통해 실직자들은 노동의 가치를 배웠다.

자신이 만든 주먹밥을 받아주고 환한

### 주먹밥과 함께하는 나눔의 5·18

지퍼가 주먹밥을 만들어 시민군에게 나눠 주었던 시민참여의 의의였다.

밥상 공동체, 군부독재가 아무리 민중의 열망을 총칼로 억압하려 했지만 밥상은 빼앗을 수 없음을 보여준 저항이었다.

함께 나누는 '밥'은 사랑을 뜻하며 무한한 신뢰로 무장된 운영공동체로 광주를 하나로 만들었다.

밥알이 모여 주먹밥이 되듯 광주시민은 항쟁기간 동안 서로 격려하고, 위로했다. 외부와 단절된 채 고통받는 민중을 살리는 역할을 한 것이다.

광주가 살아 있음을 느끼게 했던 주먹밥은 나눔과 희망을 잃지 않았던 위대한 광주정신이다.

이런 5·18 나눔의 정신을 계승해 2001년부터 실직자들과 함께 5·18 기념식에서 주먹밥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IMF 이후 실업·빈곤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길거리에 버려진 시민

들게 웃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실직자들은 삶의 아름다움을 배웠다.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세상. 땀 흘려 노력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꿈꾸며 올해도 실업자들은 5·18 행사기간 동안 '밥'을 한알 한알 모아서, 5월 정신을 계승하며 주먹밥을 만들고 시민들과 함께 했다.

나눔의 공동체는 대동세상이다. 거창한 것을 꿈꾸는 세상이 아니라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이기주의가 난발하는 시대에 서로 아끼고 위로하며 차별 없이, 실업 없이 일하는 세상이다.

광주가 서로 주먹밥을 나누며 5월 항쟁의 죽음과 공포를 뛰어 넘었듯이 실직의 아픔 또한 광주 시민이 깨어나야 할 몫이다.

이제 위대한 광주와 한국 민주주의의 산파인 광주 시민들이 실직자들에게 주먹밥(직장)을 나눠줘야 할 때다.

<노동실업광주센터 관장>



### 잊혀져 가는 제주도 조랑말



'천동이' 기억할까. 한국 영화 최초로 말과 인간의 우정을 그린 영화 '각설탈'에서 1천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캐스팅된 탓에 화제가 됐던 경우마다. 제주도산 토종이라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우리나라는 가마민족이라 칭할 만큼 옛 부터 여러가지 말들을 잘 개량하고 다뤘었지만 현재 유일하게 명맥이 유지되는 고유 말은 조랑말인 제주마(전연기념물 347호)뿐이다. 기존의 말들은 기록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원래 제주도의 고유종에 토고말이 유입되어 개량된 제주마는 우리나라의 환경에 알맞고 섬이란 고립된 지역 탓에 전멸과 살상으로부터 보호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 역시 현재는 관광용 이상의 용도로는 잘 활용하거나 육성되지 못하고 있는 처지다.

대신 외국의 유명 경주마들이 들어와

경마라는 스포츠 아닌 스포츠에 편승하여 대접받는 자본 위주의 동물사육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자본의 논리가 들어가면 자연스레 경쟁력이 약한 고유종은 고사하게 되어 있다. 사실 의지만 있다면 굳이 경마장에 외국종이 아닌 제주마로서 경주를 해 볼만도 하다. 계속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기원에 없어진 야생동물들은 고사하고라도 소위 토종이라는 체구가 작은 후 때지, 성장기간이 느린 좁소, 외항이 떨어지는 진돗개, 삼살이 같은 몇 종 안 남는 토종마저 버티지 못하고 사라질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우리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고 하지 못하는가.

토종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바로 우리 정체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최종 목적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 독자마당

###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몸매 만들기' 열풍 지나치다

요즘 아침 방송 프로그램은 문제가 많다. 지상파 방송사는 며칠째 완벽 몸매만들기 열풍을 경쟁적으로 전담하고 있다. 건강을 위해 몸 관리를 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뺏살이 많고 체형이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웃음거리가 되고 게으른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거의 당연시한다.

심지어 방송에서는 개그맨들이 나와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로써 '호감' 또는 '비호감'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노골적으로 상대를 공격한다. 여성이나 남성 출연자 할 것없이 아예 상대방 출연자에게 "많이 상했

다"거나 "우체통 체형이네요"라며 편견과 면박을 준다.

많은 프로그램에서 노출을 강조하고 여성들의 경우 특별히 몸매관리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익을 위한 전파매체인 공공방송이 국민들에게 건강을 위해서보다 보여주기식 몸매를 강조하는 세태는 결코 옳지 못하다.

더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쓰여져야 할 돈이 몸매관리와 다이어트에만 사용되는 것,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강근구·광주시 광산구 광산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 無等鼓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는 13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명문 클럽이다. 명문가의 명성이 지금껏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뛰어난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이 가능했다. 조지 베스 트, 바비 찰튼, 로이 킨, 데이비드 베컴 등 세계 축구사에 길이 남을 영웅들이 수도룩하다.

이들과 함께 맨유의 스타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한국 축구팬들에게도 어느 정도 알려진 스티브 코렐이다. 설기현이 소속돼 있는 프로축구팀 레딩의 현 감독인데 또 다른 이유에서 한국팬들은 관심을 가질만 하다.

그는 1975년부터 7년간 맨유에서 오른쪽 날개로 활약했다. '윙맨'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395경기에 출전, 70골을 넣었다. 그의 가장 큰 특징은 실재없이 움직이며 상대 진영을 흔들고 다닌다는 것이다. 그라운드에서는 항상 눈이 번쩍 뜨이게 찰찰 넘쳤다. 실속없이 개인기만 뽐내는 것이 아니라 팀에 도움을 주는 플레이를 하는 선수였다. 1977년에는 FA컵 우승까지 이끌기도 했다.

과감한 돌파와 반칙을 유도하는 지능적인 몸놀림 등 부지런한 움직임이 지금 박지성의 모습이었다. 맨유 입단 직후, 영국 언론과 축구팬들은 그라운드에서 총횡무진 질주하는 박지성을 보자 코렐을 떠올리며 환호했다. '제2의 코렐', '코렐의 관박이'라고 부르며 극찬했다.

지난 19일 열린 126회 잉글랜드 FA컵 결승전, '축구전쟁'에서 첼시에 진 맨유의 퍼거슨 감독은 "그의 부재는 우리에게 큰 손실이다(He is a big loss to us)"고 탄식을 했다. 그를 그리워한다고 했다. 그가 말한

무릎 수술 후 지금은 고향집에서 재활에 여념이 없는 박지성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자랑스럽고 부듯하지 않을 수 없다. 그라운드를 맹렬하게 휘젓고 다니는 '산소탱크, 무쇠체력' 박지성을 우리도 그리워한다.

/기현호 체육·여름레처장 khh@

### '그리운' 박지성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 동 국 2200-521	판 매 부 2200-551
정치 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 부 2200-617	체육 팀 2200-627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 1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사업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